

대구 주보

사순 제2주일 2017. 3. 12.(가해) 제2042호

2017년 교구장 사목교서 | 그리스도의 젊은 사도, 청소년과 청년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http://www.daeguujubo.or.kr>

T. (053)250-3048~9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얗졌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마태 17,2-3) 수난에 앞서 보여 주신 거룩한 변모는, 우리에게 영적 갈망의 기쁨을 간직하며 사순 시기를 보내라는 메시지입니다.
_ 정미연 소화데레사 作

제1독서 창세 12,1-4ㄱ

제2독서 2티모 1,8ㄴ-10

복 음 마태 17,1-9

화 답 송 ◎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복음환호송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빛나는 구름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영성체송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희망의 표지,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허인 베네딕도 신부 | 지좌본당 주임

사순 시기 주일에는 특별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지난 사순 제1주일에는 예수님의 유혹 이야기가 그 주제고, 오늘은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가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사건은 제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건입니다. 복음에서 이 이야기가 어디쯤에 위치하느냐의 문제도 우리가 이 사건을 이해하는데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기 직전에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수난과 부활을 예고하시고, 또 당신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거룩한 변모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리고, 가족도 재산도 다 버리고 따라나섰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당신을 따르려면 죽을 고생을 할 각오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 심정이 참 답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 믿고 따라나섰는데,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고생할 각오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불안한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수난 후의 모습, 부활하신 모습을 미리 보여주심으로써 제자들이 절망에 빠지지 않고 힘과 용기를 내라고 오늘 당신이 거룩하게 변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당에 나오

면 좋은 일이 막 생길 것이다. 복도 많이 받고 하는 일도 잘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성당에 나오는데, 막상 나와 보면 어땠습니까? 주일 지키기도 힘들고 돈이 더 벌리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돈이나 내라고 하고... 이런 생각이 들면서 서서히 교회와 멀어져 버리는,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복음은 ‘이런 어려움은 하나의 과정이다. 이 과정이 지나고 나면 부활의 기쁨, 참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행복해야 합니다. 성당에 다니지 않을 때보다 더 행복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행복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돈을 더 벌면, 돈이 좀 더 많아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당에 나오면 돈도 좀 잘 벌렸으면 좋겠다고 바라기도 하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보니 아니더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지금 내가 성당에 다니면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복음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통적으로 사순 시기를 은총과 회개의 시기라고 합니다. 수난 이후의 부활을 볼 수 있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이후를 볼 수 있는, 신앙의 은총으로 우리의 삶이 좀 더 행복해지는 사순 시기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필문**

제 2 장 함께 할 때 우리는 강하다

박용욱 미카엘 신부 |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시속 70Km로 맹렬하게 쫓아오는 굶주린 야생 곰을 피하려면 얼마나 빨리 달려야 할까요? 누군가의 답은 이렇습니다. “옆 사람보다 빨리 뛰면 된다.”

엄청난 힘과 속도, 높은 지능과 인내심에 나무도 잘 타고 수영도 잘하는 곰을 한 사람의 힘으로 감당해내기는 어렵습니다. 차라리 나보다 느린 옆 사람이 곰에게 먹히는 동안 홀로 줄행랑을 치는 게 더 현실적이겠지요. 이것은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급격한 사회 변화 앞에서 많은 이들이 택한 길이기도 합니다. ‘너는 죽더라도 나만은 살아야겠다!’는 속내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전략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지요. 옆 사람을 다 먹어치운 곰이 언젠가는 나를 노리게 될 뿐 아니라, 곰이 꼭 끝자리에 처진 사람만 먹기로 삼지는 않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의 무한 경쟁 속에 뒤쳐질까 노심초사하는 우리도 앞선 자리를 잠시 차지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아무도 영원한 승자의 자리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만, 내 가족만이라도 앞서 나가길 바라는 것보다는 거센 변화의 격랑을 함께 이겨가는 것이 참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쫓아오는 곰에게 옆 사람을 먹이로 던져주는 것보다는 여럿이 곰과 맞서거나 곰을 길들일 방법을 찾는 편이 더 나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두캣』 제2장이 설명하는 것처럼, 교회의 사회교리는 인간을 파괴하는 경제라는 괴물 앞에서 함께 사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교회는 모든 인간이 하느님과 이루는 일치 그리고 모든 인간이 서로 이루는 일치의 표징이며 도구(『교회 현장』 1항 참조)이기 때문에, 주님의 모범에 따라 이 시대의 무기력한 이, 희생된 이, 가난한 이들과 연대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연대는 비단 가톨릭 신앙인뿐만 아니라 선의의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두캣』 35항).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 주겠다.’(창세 2,18)고 하신 하느님 말씀을 따르려는 교회의 가르침이 사회교리인 것입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을 예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산업구조가 바뀐다는 것은, 곧 지금까지 있던 일자리들이 사라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인간과 가축의 노동력을 증기기관이 대신하게 된 1차 산업혁명부터 여태까지 나타난 일관된 현상은 산업구조의 혁명적 변화가 누군가에게는 이익이 될지라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굶주린 곰처럼 무서운 재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이 물고 오는 4차 산업혁명은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앗아갈까요. “함께 할 때 우리는 강하다.”는 『두캣』 제2장의 제목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필**

♪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

이승연 소화데레사 수녀 | 예수성심시녀회



오래전의 일이 생각납니다. “우와~ 하느님이다.” “아니야, 예수님이야,” “아니, 아니, 성모 마리아야.” 하얀 수건을 쓰고 걸어가는 저를 보고 6, 7세쯤 되어 보이는 아이들 서너 명이 자기 말이 맞다고 목소리를 높여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애들아, 고마워. 나는 수녀라고 해.”하고 인사를 나누자 아이들의 눈이 초롱초롱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에게 “예수님, 예수님 머리에 이 하얀 보자기는 뭐예요? 왜 이런 옷을 입었어요? 머리카락은 앞에만 있어요? 예수님은 대머리에요? 어디에 살아요?”등의 질문들이 막 쏟아졌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수녀’라고 부르는 것보다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쉽나 봅니다. “응, 수녀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저는 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질문에 더 호기심이 생기도록 답해 주었습니다. “아! 나를 보며 하느님, 예수님, 성모님 생각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정말 기쁩니다. 지금도 많은 어린이들은 저를 보고 ‘예수님’ 또는 ‘하느님’으로 부릅니다. 황송스럽게도.

저는 유치원 어린이들을 만나는 특별한 사도직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 유치원 현장에서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저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보면 웃음꽃이 저절로 피어오르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제가 만나는 아이들은 철학적이고 순수하고 열정적이며 순종적이고 겸손하고, 바다 같은 마음으로 용서할 줄 알고, 하늘 같은 꿈을 꾸며, 대지와 같은 사랑을 베풀 줄 압니다. 하느님을 닮은 아이들을 보며 제 자신이 정화되어 가니 참 감사합니다.

가난하고 사랑에 굶주린 불쌍한 어린이들도 많이 만납니다. 그 아이들이 유치원을 다니면서 자기를 조절하고 질서를 지키고 기다릴 줄 알고 양보하며 나눌 줄 알게 되고 예의를 지키고 기도 하는 등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을 보면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느끼게 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과 인내하는 사랑이 필요함을 배웁니다.

유치원 사도직을 통해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저를 초대하시는 하느님! 감사합니다. 어린이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안으시고 축복하신 예수님,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이 당신을 닮아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며 하느님의 사랑과 지혜를 배우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주소서. 어린이들을 통하여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아멘. **필문**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도 더하여 갔다.” (루카 2,52)

교회

“하느님께서서는 사람들을 서로 아무런 연결도 없이 개별적으로 거룩하게 하시거나 구원하시려 하지 않으시고, 오직 사람들이 백성을 이루어 진리 안에서 당신을 알고 당신을 거룩히 섬기도록 하셨습니다.”(『교회 헌장』 9항)

우리가 성사를 받고 하느님 말씀을 듣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어로 ‘불러 모은 사람들’(라틴어 ecclesia, 에클레시아)을 뜻합니다. 세례를 받고 하느님을 믿고 있는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불러 모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후 사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강림날을 교회의 창립일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하느님께서 직접 세우신 것이므로 단순한 공공기관이나 일반 세상의 단체와는 다릅니다.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이자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께서 머물러 계시는 성전입니다. 교회는 서로 떼어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네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 네 가지를 다 지키고 있는 교회가 바로 가톨릭교회입니다.

첫째, 교회는 하나입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그리스도는 오로지 한 분뿐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오직 하나요, 그리스도의 신부도 오직 하나며,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도 하나만 존재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고 교회는 몸통입니다. 이 둘이 온전한 그리스도를 이룹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몸이 여러 기관을 지녔지만 전체로는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여러 지역 교회(교구)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교회만이 존재합니다.

둘째, 교회는 거룩합니다. “살아 계신 하느님의 성전”(2코린 6,16)인 교회는 그 구성원들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직접 세우신 하느님께서 거룩하시고, 그런 하느님께서 교회 안에서 살아계시고 활동하고 계시기에 거룩한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에 속한 이들이 인간적인 속성으로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지만 하느님께서 결코 교회를 저버리지 않으시기에 교회는 영원히 거룩합니다.

셋째, 교회는 보편적입니다. 보편적이란 말은 전체와 관련되어 있음을 뜻하는데, 여기서 가톨릭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여 계시고 그분의 진리를 온전히 지니고 있기에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도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이르셨고 모든 민족들에게 교회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형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한이나 조건도 없습니다. 교회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습니다.

넷째, 교회는 사도로부터 이어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사도들로부터 시작되었고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들을 통해 사도들의 가르침과 고귀한 신앙유산을 보존하고 이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전권을 위임하신 이래로 이 전권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안수와 기도를 통해 주교에서 주교에게로 전달되는데 이 과정을 ‘사도 전승’(apostolic succession)이라고 부릅니다. 



3. 11(토) _ 제4회 교구 세계 여성의 날
축사(10시 30분, 교육원 다동 대강당)



3. 11(토) _ 제4회 교구 세계 여성의 날
파견미사(15시, 교육원 다동 대강당)

교구 및 기관 행사

- 3. 15(수) _ 시니어 평생대학 봉사자 성경교육(13시,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 3. 16(목) _ 35기 성모마리아 어머니학교 3주차(9시 30분, 성김대건성당)
- 3. 18(토) _ 2017년 1학기 중·고등부 학생회 간부 연수(19일까지, 청통수련원)
파스카 팀 봉사자 교육(19일까지, 꾸르실료교육관)
- 3. 19(일) _ 가나 강좌(9시 30분, 가톨릭대학병원 마리아관 1층)
예비신학교 개학미사(14시, 신학교 대성당)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창세 1,10,12,18,21,25,31)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내용 중 '생태적 회개(217항)'와 관련하여 교구 생태환경 위원회에서는 “**생태와 환경을 위한 실천사항**” 세 가지를 정하고 하느님의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생태 평화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올해 사순 시기가 시작되는 2017년 3월 1일(재의 수요일)부터 2018년 사순 시기까지 1년 동안 교구민들께서는 적극적인 동참으로 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와
환경을 위한
실천사항**

1. 손수건 들고 다니기 (한 장의 기적)
2. 개인 컵 들고 다니기 (한 잔의 기적)
3. 남은 자원 모으기 (오병이어의 기적)



살겠습니다 금주의 실천 사항(평신도위원회 제공)

“용서와 화해의 마음으로 고해성사를 성실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사 안내

대구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3월 13일(월) 10:30 범어성당	포항지역 학교복음화 미사	3월 13일(월) 19:00 오천중학교경당
경주지역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3월 13일(월) 11:00 황성성당	1대리구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3월 14일(화) 11:30 계산성당
구미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3월 13일(월) 11:00 신평성당	대구지역 학교복음화 미사	3월 15일(수) 19:30 교구청 별관 306호
포항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3월 13일(월) 11:00 죽도성당		
1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3월 13일(월) 11:00 계산성당	김천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3월 16일(목) 10:00 평화성당
3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3월 13일(월) 11:00 월성성당	3대리구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3월 18일(토) 10:00 월성성당

대리구 소식

3대리구 성경대학 신입생 모집

낮반: (수) 14:00~16:00

저녁반: (수) 19:30~21:30

수강료: 1학기당 6만원

문의: 3대리구청, 641-5678

성소 | 피정

한국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만남이 가능합니다.

대상: 해외선교사제 지원자

문의: 조대윤 신부, (010)3777-4688

천주성요한의료봉사수도회 성소 모임

일시: 3.18(토) 14:00

장소: 서울, 개화동 수도원

문의: (010)3800-1579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성소 모임

문의: (010)5033-9302

<http://www.columban.to>

마리아 영성 피정(성체헌사·미사·안수)

일시: 3.15(수) 13:00~16:30

4.19(수) 13:00~16:30

지도: 강요셉 신부

장소: 삼덕성당, 422-6691

3월 한티 피정

일시: 3.25(토)~26(일)

주제: 우리시대의 웰빙과 힐링

지도: 김정우 신부

(대구가톨릭대학총장)

문의: 한티피정의집, (054)975-5151

꽃동네 사순 침묵 피정

기간: 3.24(금)~26(일) / 독방

장소: 꽃동네 영성원 / 피정비: 12만원

지도: 꽃동네 수도 사제

강사: 오웅진 신부

문의: (043)879-8500 / (010)8880-8286

교육 | 모집 | 기타

장례지도사 무시험 국가자격증 취득교육

개강: 3.17(금) / 종강: 6.18(일)

주말반: (금) 18:30~22:20

(토, 일) 13:30~21:50(주 3회)

학력, 남녀 제한 없음

문의: 대가대장례교육원, 555-4404

코칭영성(5단계) 인증 과정

기간: 3.25(토) 14:00~26(일) 17: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다음카페 '우아청' 참조

문의: (055)221-1891 / (010)3883-7004

대구가르멜여자수도원 재건축 후원자 모집

교회를 위한 저희의 기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재건축을 위해

여러분의 도움을 간절히 청합니다.

후원: 대구은행 504-10-137072-9

문의: (010)3375-4408

서부지중해 크루즈 성지순례

창간90주년 특선상품(1회 한정)

기간: 5.12(금)~22(월) 10박 11일

순례국: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경비: 내측 439만원, 발코니 499만원

문의: 가톨릭신문사, (02)2281-9070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출발: 매월 1회, 4박 5일 / 63만원

지역: 가고시마, 나가사키

주관: 가고시마교구 / 지도: 송진욱 신부

문의: (010)3005-9028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

라식, 백내장수술 병원

김기산안과
KIM KI SAN EYE CENTER

의학박사/전문의 김 기 산(안드레아)
(전 동산의료원 안과과장)

반월당 대구학원 9층
☎(053)257-8875
www.kisaneye.co.kr

SINCE 33

진실한 신자와의 만남의 장

성가정 결혼

053)474-0025, 010-3818-0818

가톨릭 문화관 2층
남대구 우체국 옆, 교대역 3번 출구
권 중 문(파비올라)

Neome Skin Clinic **네오미피부과**

원장/피부과 전문의 이준호 시메온

소아, 난치 피부질환 클리닉
명품레이저 보유

월성CGV 건너편 T.053)656-0075

NAVER 네오미피부과 검색

목조전원주택 분양/시공

21C HOUSING 21C주택산업

이정수 마티아 010-2624-0322
경산조폐공사 정문 앞

아토피·에민피부 특화병원

www.dalsungskin.com

달성피부과·성형외과

아토피 체질치료/아토피 피부관리/레이저
민감성피부 성형수술/비만클리닉

원장 손재경(다미아노) 김인주(레지나)
053)566-4333 2호선 두류역 2번출구

(주)한투어 성지순례전문

한투어

이스라엘,이탈리아 성지순례 모객중
(9월 11일 ~ 9월 22일)

☎ 053-427-7090
안 요한, 김 마리아막달레나
<http://www.hantourcatholic.com>

SM **수맥홍침대**

창업 26주년 행사 중!

공장직영, 황토소파

☎1588-5335

행사 | 모임

2017년도 예비신학교 입학 및 개학미사

일시: 3.19(일) 14:00

장소: 남산동 대신학원 대성당

대상: 1~5대리구 예비신학생

* 부모님도 참석 가능하며, 미사 후 학년별, 지역별 모임 있습니다.

가나 피정 개설

기간: 3.25(토)~26(일), 연화리 피정의집

대상: 결혼한 지 5년 이하의 부부

참가비: 부부당 4만원(1인 2만원)

문의: 교구 가정담당, 250-3114

1박 2일 치유 무료 피정

기간: 4.1(토) 14:00~2(일) 13:30

장소: 대구성령봉사회(고령 월막)

강사: 박원석(안드레아), 이영옥(마리아)

신청: (054)954-0951(차량이용비: 1만원)

1일 피정: 3.18(토) 14:00~17:00

교육 | 모집

3월 가나 강좌

일시: 3.19(일) 10:00~17:30(시간엄수)

장소: 가톨릭대학병원 내 마리아관

참가비: 1인 2만원(당일 신청) 무료주차

문의: 교구 가정담당, 250-3114

시편성가, 발성법 연수

일시: 3.12(일) 15:00 / 회비: 1만원

지도: 김정선 수녀, 박재연

문의: 교구 음악원, 255-4847

더 행복한 혼인생활을 위한 ME주말

350차 ME주말: 4.28(금) 19:00~30(일)

풍요로운 혼인생활을 위한 부부프로그램

장소: 한티피정의집 / 문의: 983-0521

프란치스카눔 요한복음 성경공부 모집

기간: 4.5~6.28 매주 수·목

장소: 프란치스카눔(월배수도원 뒤)

강사: 강주현(사도요한) 수사 신부

문의: (010)9100-4114

54차 선교대학 개강(선교의 왕도_감동)

일시: 3.25(토) 10:30~16:30

장소: 계산문화관 / 지도: 이판석 신부

신청비 무료, 중식 제공

주관: (사)가두선교단, 781-6100

한중친선교류 평신도 회원 모집

동아리(중국어 / 성경, 노래, 회화 등)

월례회(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친교)

중국 / 성지순례, 문화여행, 교류활동

대상: 중국에 관심있는 모든 신자

문의: 한중친선협회, (010)2662-1560

대구가톨릭평화방송 신앙 특강

일시: 매주 금 10:00~11:15

장소: 계산성당 제1교리실

강사: 3월_서보호(라이문도) 신부

문의: 대구가톨릭평화방송, 251-2630

3월 지성인을 위한 토요 신앙 특강

일시: 3.18(토) 10:00~12:00

장소: 대구가톨릭대 신학대학(남산동)

주제: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

강사: 유완식(바오로) 교수

문의: 평신도신학교육원, 660-5105~6

채용 | 안내

관리국 회계과 직원 채용

자격: 45세 이상으로 회계 관련 경력자

서류: 자필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

본, 경력증명서, 회계관련 자격증 사본

마감: 3.24(금) 13:00

제출: 교구청 관리과, 250-3030

교구 청소년국 직원 채용

업무: 행정, 학교복음화 업무 각 1명

자격: 교리교사 3년, 운전, 컴활능력

문의: 교구 청소년국, 250-3064

장애인 거주시설 루도비고집 위생원 채용

마감: 3.15(수) / 업무: 세탁, 환경관리

문의: 루도비고집, 802-2258

통합의료진흥원 전인병원 간호사 채용

통합의료진흥원 전인병원과

함께 근무 할 병동간호사를

모집합니다. / 문의: 670-5708

교구 법원 공시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이지현(아가다), 박영오(요안나)

문의: 교구 법원, 253-9550

이시우 신경외과
http://척추외과
척추 디스크 협착증 · 질환전문
(척추수술 5,000례 시술)
☎ 652-0119 원장 이시우(사도요한)
내당역 3번 출구 앞 반고개에 위치

대구연세안과
· 백내장수술 · 아이디자인 라식
· 노안 수술 · 망막·녹내장 검사
지하철 1호선 영대병원역 2번 출구
의학박사 원장 박종원(소시모)
현, 연세대외래교수
☎ (053)626-8881~5

나비피부과
(여드름/기미/모공)
피부과 전문의 / 원장 김창욱(라파엘)
053.253.7582
동성로 롯데영플라자 맞은편

HS 흥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 LTD.
대표이사 서 상 윤(안젤로)
송 정 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 522-5800 | 010-4508-4328
010-2002-4328

보건복지부 인증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말기암 통증 및 증상 조절
재능 및 기타봉사자 상시 모집
사랑나눔의원 원장 전 은 수(가브리엘)
대구시 수성구 화랑로 112-1 (동구시장 맞은편)
24시간 상담 · 입원 (053)217-9500

장보고의료내과
원장 내과전문의 조 재 현(세례자요한)
위 · 대장내시경 / 건강검진
당뇨병 · 고혈압 및 내과질환
Tel. 053 791 7585
지하철 2호선 신매역 경산방향 5번 출구
신원은행 시지점 건물 3층 (달구벌대로 3218)

고객님의 소중한 정보, 이제는 안전하게 파세요!
시니어문서파쇄사업
시니어문서파쇄사업은 지역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를
위한 대구서구시니어클럽의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대구서구시니어클럽
문의 ☎ (053)563-1025 노현영 사회복지사

책임보험 1억 가입업체
도우미믹스프레스
포장이사 · 사무실이사
대표 양말순(루시아)
591-2424 · 656-9911
010-2008-2329